

조선대병원, AI 활용 ‘스마트 의료’ 실현 속도

진단보조 솔루션·분석 시스템 도입

24시간 작동 골든타임 확보 등 실현

진료 정확도 높여…“미래의료 선도”

조선대병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 환자 중심의 스마트 의료를 실현하고 있다.

24일 조선대학교병원에 따르면 병원 곳곳에 AI를 접목한 다양한 진단보조 솔루션과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진료의 정확도와 속도를 제고,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AI 기반 흉부·폐 CT 자동영상분석 솔루션 '루카스(LuCAS)'는 CT 영상에서 폐 결절을 자동 검출하고 정량화해 진단을 지원한다. 모든 과정이 완전 자동으로 이뤄지며 24시간 상시 대기 상태로 활영 직후 분석을 시작해 판독 초안을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대기시간을 줄이고 있다.

응급실에서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AI 뇌 영상 분석 기술이 활용된다. 비조영 CT 기반 AI

솔루션이 뇌출혈 여부와 뇌경색을 빠르게 판별해 ‘골든타임’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AI 관류 영상 기술로 재판류 치료 가능 시간을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생명을 살릴 기회를 제공한다.

MRI 영역에서도 AI는 검사 혁신을 이끌고 있다. 딥러닝 기반 MRI 가속화 솔루션 도입으로 검사 시간이 20~30분 단축됐고 현재는 MRI 장비에 내장된 AI 기능을 통해 영상 품질을 높이며 검사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다.

조선대병원은 최근 광주·전남 지역 최초로 3

차원 자동유방초음파(invenia ABUS 20)'도 도입, 운영 중이다.

이 장비는 전동식으로 유방 초음파 검사를 자동 수행하며 AI가 3차원의 입체 유방 초음파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부위를 자동으로 검출한다. 이를 통해 종양의 위치와 크기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의료진의 진단과 판독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돋는다.

이와 함께 조선대병원은 K-Health 국민의료 AI

서비스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기반 병원 응급의료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스마트 의료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는 이제 명 대통령의 광주시 공약인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과도 맞물려 지역 기반의 AI 산업과 미래의료 혁신이 함께 성장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심정지 예측, 척추질환 진단, 골연령 평가 등 다양한 영역에 AI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다.

김진호 병원장은 “조선대병원은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료와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CT, MRI, 뇌졸중 진단, 생체신호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진단의 정확도는 물론, 환자의 안전과 만족도까지 향상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스마트 의료 환경을 구축해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병원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수희 기자



조선대병원이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다양한 진단보조 솔루션과 분석 시스템을 도입, 환자 중심의 스마트 의료를 실현하고 있다. 사진은 영상의학과 김진웅·선현주 교수가 AI기반 흉부CT 판독 보조 솔루션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모습.

화순전남대병원, 글로벌 무대서 ‘K-바이오헬스’ 알려

‘BIO USA 2025’ 참가 전시부스 운영

김형석 의생명연구원장 ‘암 허브’ 발표

화순전남대병원이 ‘K-바이오헬스’의 세계 시장 진출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24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16~19일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BIO USA 2025’에 참가해 화순 바이오·메디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알리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가했다.

BIO USA 2025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등 국내 대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참가했으며, 전남바이오진흥원도 지역의 바이오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나섰다.

화순전남대병원은 병원 창업기업인 박셀바이오, 디알큐어와 함께 바이오클러스터의 중심축으로서 준재감을 드러냈다.

의생명연구원을 중심으로 현지 전시 부스를 통해 면역항암 중심의 연구 역량, 국제적 수준의 임상시험 인프라, 스타트업과의 연계 구조 등을 소개하며 전남 바이오산업의 차별화된 비전과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박립희 동안 보스턴 현지 유수 연구기관들과의 전략적 협력에 주력하며 글로벌 공동연구 기반 확대에 속도를 더했다.

세계적 암 전문기관인 데이나-파버 암연구소



화순전남대병원이 지난 16~19일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BIO USA 2025’에 참가해 ‘K-바이오헬스’의 경쟁력을 알리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가했다. 사진은 김형석(왼쪽에서 세 번째) 화순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 등이 세계적인 바이오 창업 지원기관인 ‘랩센트럴’을 방문한 모습.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제공)

(Dana-Farber Cancer Institute)를 방문해 배주은 선임연구원과 함께 암 정밀의료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및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또 보스턴대학교 김종성 교수와 만나 한국형 ‘랩 센트럴(Lab Central)’ 모델의 운영 체계와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협업 방안을 모색했다.

Lab Central은 보스턴 지역의 대표적인 바이오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로, 공유 실험공간을 기반으로 혁신 생명과학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김형석 화순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은 “BIO USA 2025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등 국내 대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참가했으며, 전남바이오진흥원도 지역의 바이오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나섰다.”며 “화순 바이오 클러스터의 중심축으로서 준재감을 드러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병원 창업기업인 박셀바

이 자리에서는 하버드-MIT 의사과학자 프로그램과의 교류 및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했으며 화순 중심의 글로벌 협력 생태계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석 의생명연구원장은 “BIO USA 2025 참여자는 전남이 면역항암 치료와 바이오 신약 개발 분야에서 국제무대에 본격 진출하고 있음을 보여준 계기가 됐다”며 “현지 연구기관들과의 협력 논의는 병원의 연구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민정준 병원장은 “화순전남대병원은 단순한 지역거점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항암·면역 의료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며 “국제 바이오 생태계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공동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화순전남대병원 ‘제1차 원외 대표협의체’ 개최

전남권역책임의료기관인 화순전남대병원이 최근 ‘2025년 제1차 원외 대표협의체’를 개최했다.

24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이번 지역·필수의료 원외 대표협의체에는 민정준 병원장과 강호철 진료부원장, 권순석 공공보건의료 사업실장, 전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광주·전남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 곡성군 보건의료원장, 전남도 사회서비스원장 등 총 1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운영현황을 공유하고 전남도 의료취약지 응급 의료 강화 방안,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준비 등을 논의했다.

한편 화순전남대병원은 지역·필수의료의 지역 격차 해소와 의료 공공성 향상을 위해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 협력 ▲감염 및 환자 안전 ▲정신건강 증진 협력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기수희 기자

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본부-전주대 업무협약

인재 양성·직원 전문성 향상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본부(이하 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본부)는 최근 전주대학교와 지역사회 발전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24일 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본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상생 발전 도모 및 직원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전문성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건보공단은 전주대학교 대학원 학위과정의 흥보에 협력하고, 전주대학교는 공단의 재직자가 전주대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밟을 경우 매 학기 수업료의 50%를 감면하는 장



학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영희 본부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공인재 양성이 중요한데, 이번 협력 교류를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자기발전 기회가 확대돼 기쁘고 미래 성장과 지역 상생을 위해 공단에서도 교육 활동에 더 많은 관심 갖겠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